

<경북도, '선택과 집중' 병행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경북도, '선택과 집중' 병행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경북도 문예진흥기금 운용방식 대폭 개선

창작활동에 대한 집중지원 및 신진작가 창작지원을 늘려 운용키로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문예진흥지원금이 지금까지의 소액 다건주의에서 탈피, 2008년부터 대 상별로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별화해서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 지원과 집중지원 체제를 병행 이원화되며 집중지원의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단체위주로 지원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신진작가에 대한 참여 기회 폭을 확대하고 특히 창작활동이 뛰어난 단체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그리고 기금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4백만원 이상 지원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사 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지원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8년 문예진흥기금 접수는 12월20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이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국 악및전통예술, 연예, 종합예술, 국제문화교류, 지방문화행사, 신진작가 창작지원등 11개분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최종 사업 선정 결과는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에 최종 확 정된다.

신청서 교부는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며 접수는 도 문화예술산업 과 및 시·군 문화예술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끝)

출처 : 경상북도청

[2007-12-20 16:09 00 송 고]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책임은 제공자에 있습 니다.